

「中東文庫」의 장서 현황과 자료 가치에 관한 일고

김 호*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 II. 최규동과 중동문고의 형성과 기증 | 중동문고의 장서 현황과 |
| III. 한국고전번역원 중동문고의 | 자료 가치 |
| 장서 현황과 자료 가치 | 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근대 이전 중국에는 藏書家라는 지식인들이 있었다. 장서가들은 다양한 서적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일에 종사했다. 표면적으로 장서리는 활동은 단순히 서적을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지식의 전파와 축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듯이 중국의 저명한 장서가들은 학자였고, 그들이 남긴 藏書目錄(혹은 藏書志)는 중국의 학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장서가와 장서에 관한 연구가 없지 않다. 다만 관련 연구 성과가 적은 편이다.¹⁾ 동시에 근대를 전후로 존재했던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1) 주요한 선행연구를 예로 들면 손계영, 〈朴世堂의 장서목록 《家藏書籍》 연구〉(《장서각》26집, 2011, 222-255쪽); 김자운, 〈장서(藏書) 기록을 통해 본 정윤영(鄭胤永) 가(家) 장서(藏書) 및 장서인(藏書印)의 특징〉(《한국서원학보》4집, 2017, 131-167쪽); 손계영, 〈광주이씨 李元禎家の 장서인과 장서기 연

장서가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²⁾

본문은 상술한 연구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제강점기인 1906년에 중동학교에 설립되었던 「中東文庫」를 연구 대상으로 해당 장서의 형성 배경과 集散 과정 및 자료 가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과거 중동문고에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던 고서들은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으로 약칭함)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이하 존경각으로 약칭함)에 나누어 기증되어 보관, 관리되고 있다. 두 기관은 기증받은 고서에 대해 일차적인 목록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존경각은 중동학원으로부터 중동문고를 기증받은 후에 먼저 《중동문고(中東文庫) 목록》이라는 간략한 목록(비매품)을 작성하였다. 동시에 해당 서적들에 대해 목록보다 상세한 서지 사항을 기록하여 존경각 홈페이지(<http://east.skku.edu>)에 관련 내용을 업로드 시켜놓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존경각 홈페이지에서 《중동문고》에 속한 서적들의 서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번역원에서 작성한 목록과 존경각 홈페이지를 통해 중동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의 종류와 내용 및 성격 등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중동문고는 일제강점기 중동학원에서 수집한 한국본과 중국본 및 기타 서적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서의 수량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서의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시대환경을 고려

구)(<嶺南學>89집, 2024, 7-46쪽); 최식, <장서가(藏書家) 심의평(沈宜平)의 문예활동(文藝活動)과 편저(編著) -<삼가문존(三家文存)>과 <이여략존(怡餘略存)>을 중심으로->(<東方漢文學>54집, 2013, 193-221쪽) 등이 있다. 다만 조선 후기 이후로 대형 장서가들이 출현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때 장서가와 장서에 관한 연구는 향후 보다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2) 예를 들어 최경훈은 <李仁哉文庫 古書에 대한 書誌的 研究>(<서지학연구> 86집, 2021, 93-120쪽)에서 1940년부터 고서화를 수집한 대구의 대표적인 장서사인 이인재를 연구 대상으로 그 장서 7,540책이 1982년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기증된 상황과 문헌 가치를 살펴보았다. 최경훈의 연구는 연구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그 지향점이 있는 근대 장서가와 장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문과 일맥상통한다.

할 때 중등문고라는 장서 활동이 갖는 출판문화사적 의의는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문의 검토를 통해 근대 시기 국내 장서가와 장서 활동이라는 연구 영역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최규동과 중등문고의 형성과 기증

중등문고의 형성과 장서의 변천 과정에 관한 내용은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는 없다.³⁾ 아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먼저 중등문고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등학원이 중등문고를 번역원과 존경각에 기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등문고의 형성과 集散 과정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등문고는 엄혹한 일제강점기 1922년에 白儂 崔奎東(1882~1950)⁴⁾이 교장으로 있던 중등학교에 존재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고교 도서관이었다. 1922년 3월 5일에 설치되었다.⁵⁾ 중등은 본래 1906년 漢語(중국어)와 算術(수학) 교육을 목적으로 야간에 설립되었고, 1907년에 외국어학교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그 후 1914년 중등은 재정난으로 폐교의 위기에 몰렸는

3) 최규동 및 중등문고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 중등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종류의 자료 이외에는 큰 소득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4) 경상북도 성주 출신의 교육자이다. 私塾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廣信商業學校를 거쳐 精理畝의 수학 연구과를 졸업하였다. 평양의 箕明學校·大成學校 등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하였다. 해방 후에 서울시 교육회장, 서울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1949년 제3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어, 평양에서 작고하였다. 최규동의 납북과 북에서의 작고 시점에 대해서는 이명학 엮음, 《백농 최규동 평전》, 《중등역사박물관총서》, 2023, 105-112쪽을 참조할 것.

5) 이명학 엮음, 〈中東學校 略史〉, 《이명학(67회)이 엮은 우리 중등은》, 서울: 지코사이언스, 2016, 391쪽.

데, 당시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던 최규동이 학교를 인수하였다. 인수 당시 중동에는 학교 부채 300원과 학생 24명, 학교 직인 1개와 졸업생 명부 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22년 3월에 설치된 중동문고는 장서의 양으로는 당시 경성제국대학 다음이었다고 한다.⁶⁾ 그렇다면 1914년부터 1922년 사이에 상당한 분량의 서적이 중동문고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922년 당시 중동문고의 장서량이 서울대학교 다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사실을 통해 당시 중동문고에 소장된 서적들의 수집에는 최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존하는 중동문고의 서적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한국과 중국의 한문 고서라는 것이다. 최규동은 왜 중동문고라는 도서관을 만들면서 한국과 중국의 한문 고서를 주로 수집하였을까? 당시 중동은 한국어로 교육하는 학교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규동이 고서를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 대답은 최규동의 학문 세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규동은 1939년 2월에 조선일보 기자와 대담을 나누었다. 아래는 그 내용의 일부분이다.

스물 전에 삼국지를 좋아서 보았고, 스물 후에 조선 소설로는 구운몽九雲夢은 그 문체가 좋아서 말하자면 소설 내용보다도 글에 취해서 그 문장에 취해서 읽었어. 그리고 그림보다는 나는 글씨 보는 게 더한층 좋아요. 글씨야 잘 썼든 못 썼든 그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정신을 들여서 애를 썼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딱 재미나요. 나 개인으로는 청말淸末 하소기何紹基(1799~1873, 청나라 때 서예가) 체를 좋아하지요.⁷⁾

이 인용문의 내용을 통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최규동은 소설이라는 장르를 예로 들면서 중국 작품(삼국지)과 한국 작품(구

6) 《백농 최규동 평전》, 47쪽.

7) 《백농 최규동 평전》, 79쪽.

운몽)을 모두 좋아했다고 회고한다. 이것은 최규동의 학문 세계가 한국학에만 집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중동문고의 장서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본과 중국본 고서가 함께 존재하며 전체 장서량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중동문고 장서 구성은 최규동의 학문 세계와 일맥상통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규동은 서법을 좋아하였는데 그가 좋아했던 대상은 조선 서예가가 아닌 청의 서예가 何紹基(1799~1873)였다. 하소기는 청말의 저명한 서예가로 字는 子貞이고 號는 東洲居士이다. 하소기는 청대에서 가장 뛰어난 서예가로 평가되는데, 초년에는 顏眞卿(709~785)과 歐陽通(?~691)을 통해 서법을 배우면서 秦漢의 篆隸에 힘썼다. 중년 이후에는 北碑에 심취하여 일반적인 서법 형식이 아닌 回腕法이라는 방법으로 개성이 강한 서체를 구사했다. 최규동의 애호 때문인지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에는 《何道州金陵雜述詩藁(法帖)》(C10C-0155), 《何紹基金陵帖(C10C-0156)》, 《何紹基錄上論(法帖)》(C10C-0157) 등 하소기의 서법 서적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최규동은 원래 수학을 전공하였다. 다만 상술한 내용으로 볼 때 그의 학문에서 동양학은 중요한 구성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최규동의 학문 세계에 대한 다음의 기록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백농 선생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신지식新知識을 배움에서 나의 지적知的 두뇌가 발달된 것만큼 한학(漢學)에서 나의 의지의 서야 할 곳을 배웠다”[新生 2권, 1929.3]고 하여 백농 선생의 올곧은 정신 자세는 바로 사서삼경四書三經, 사기史記 등 동양 고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확립이 되었음을 밝혔다.⁸⁾

한학에서 ‘나의 의지의 서야 할 곳을 배웠다.’라는 최규동의 회고는 그가 동양 고전의 지식 체계가 갖는 근본적인 힘을 체득했다는 의미일 것이

8) 《백농 최규동 평전》, 53쪽.

다. 동양 고전에서 스스로의 의지가 서야 할 곳을 배웠던 최규동은 중동문고의 장서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이 학문 경향에서 멀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번역원과 존경각에 기증된 서적을 살펴보면 절대다수의 서적이 동양 고전 즉 한학 서적인 것이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한다.

다만 아쉽게도 중동문고의 형성 과정 및 장서의 集散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다음으로 풍부한 한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던 중동학원의 중동문고가 과연 최규동 일인의 힘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관련 자료의 출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중동문고가 번역원과 존경각으로 기증된 경위와 과정은 아래와 같다. 중동문고에 속하는 서적들은 중동학원과 최규동의 생가에 나누어 보관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중동학원 지하실에 보관되어 오던 중동문고 서적은 보관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때마침 1988년 성균관대학교와 중동학원의 법인이 모두 三星이었다. 이에 두 학교 법인국장이 중동문고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고서 소장 장소와 전문 관리 인력이 있는 성균관대학교에 기증하여 소장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 중동학원에 소장되어 있던 중동문고 서적은 성균관대학교로 기증되어 고서 소장기구인 존경각에 소장되게 된다. 그리고 최규동의 경상북도 성주 생가에서 보관해 왔던 서적 역시 보관상 문제가 생길까 관계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이에 현재 중동고 이명학 교장이 한국고전번역원 김언중 원장에게 최규동의 생가에 보관해 오던 서적의 의미를 설명했고, 번역원에서 기증을 받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명학 교장의 요청대로 존경각과 번역원에 기증한 서적들을 아울러 중동문고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III. 한국고전번역원 소장 중동문고의 장서 현황과 자료 가치

번역원은 중동학원으로부터 중동문고를 기증받은 후에 서명, 저자명,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 목록(비매품)을 작성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기초 조사 목록(을)을 근거로 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기초 조사 목록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편폭의 제한이 있는 까닭으로 아래에서는 해당 목록의 1쪽을 예시로 들어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한국고전번역원 소장 중동문고 목록 1쪽

번호	자료명	저판자	청구기호	수량
1	가경중수일통지색인(嘉慶重修一統志索引)	中華書局	中東 古B-001	9
2	가례증해(家禮增解)	(朝鮮)李宜朝	中東 古A-001	6
3	가례집고(家禮集考)	(朝鮮)金鍾厚	中東 古A-002	6
4	가례집람(家禮輯覽)	(朝鮮)金長生	中東 古A-003	7
5	가범(家範)	(宋)司馬光	中東 古C-001	1
6	가범전(家範典)	(?)明倫彙*	中東 古C-002	4
7	간곡정선육방옹시집(澗谷精選陸放翁詩集)	(宋)陸游	中東 古D-001	2
8	간독정요(簡牘精要)	未詳	中東 古D-002	1
9	간의대부차원부설원기(諫議大夫車原頰雪宛記)	未詳	中東 古D-003	1
10	갈선옹주후비급방(葛仙翁肘後備急方)	(晉)葛洪	中東 古C-003	4
11	감본부음춘추곡량주소(監本附音春秋穀梁注疏)	(晉)范甯	中東 古A-004	6

- 9) 해당 기초 조사 목록은 최종본이 아닌 까닭으로 내용에 있어 다소의 오류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 다만 번역원에서 향후 중동문고에 대한 상세 서지 조사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한 최종 목록을 작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번호	자료명	저편자	청구기호	수량
12	강감이지록(綱鑑易知錄)	(淸)吳乘權**	中東 古B-002	1
13	강서시두종과도록(江西詩杜宗波圖錄)***	(淸)張泰來	中東 古D-004	1
14	강희자전(康熙字典)	(淸)張玉書	中東 古C-004	30
15	건상전(乾象典)	(淸)陳夢雷	中東 古C-005	8
16	검남시초(劍南詩抄)	(宋)陸遊	中東 古D-005	1
17	격몽요결(擊蒙要訣)	(朝鮮)李珣	中東 古C-006	1
18	경본음석주해서언고사대전(京本音釋註解書言故事大全)	(宋)胡繼宗	中東 古D-006	4
19	경사집설(經史集說)	未詳	中東 古C-007	7
20	경서유초(經書類抄)	未詳	中東 古C-008	3
21	경악전서(景岳全書)	(明)張介賓	中東 古C-009	6
22	경의고(經義考)	(淸)朱彝尊	中東 古B-003	6
23	경의기문록(經義記聞錄)	(朝鮮)韓元震	中東 古C-010	4
24	경적전(經籍典)	(淸)陳夢雷	中東 古C-011	12
25	경전석문(經典釋文)	未詳****	中東 古A-005	13
26	경제전(經濟典)	(淸)陳夢雷*****	中東 古C-012	6
27	경진동과문집사략(經進東坡文集史略)	(宋)蘇軾	中東 古D-007	10

〈표 1〉에서 저자의 국적은 필자가 부가한 것이고 (*), (**), (***), (****), (*****)로 표시한 부분은 목록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표시한 것이다.

* ‘明倫彙’는 저자 혹은 편자가 아니라 淸 康熙년간에 편찬된 《古今圖書集成》의 일부분이다. 즉, 《古今圖書集成》은 〈曆象〉, 〈方輿〉, 〈明論〉, 〈博物〉, 〈理學〉, 〈經濟〉 등의 6개 〈彙編〉으로 나누고 매 〈彙編〉은 다시 약간의 〈典〉으로 나누는데 모두 32개의 〈典〉이 존재한다. 그리고 매 〈典〉은 또 약간의 〈部〉로 나누어 자료를 기재하는데 모두 6,117 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中東 古C-002 《가범전(家範典)》은 《古今圖書集成·明倫匯編·家範典》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편저자는 (淸)陳夢雷이다. 그리고 번역원에서 작성한 기초 조사 목록에서 《古今圖書集成》에 속하는 자료들이 단독 저서로 표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 1〉의 (15), (24), (26)이

여기에 해당한다. 향후 최종 목록 작성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綱鑑易知錄》의 편찬자는 (淸)吳乘權, 周之炯, 周之燦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한 표기이다.

*** 강서시두종파도록(江西詩杜宗波圖錄)에서 ‘杜’는 ‘社’의 오타이고 ‘波’는 ‘派’의 오타로 보인다. 즉, 이 고서의 정확한 서명은 강서시사종파도록(江西詩社宗派圖錄)이다.

**** 《經典釋文》은 (唐)陸德明의 저작이다.

***** (淸)陣夢雷에서 ‘陣’는 ‘陳’의 오타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향후 최종 목록 작성에 있어 적지 않은 부분에서 수정과 보충 작업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동문고 소장 서적이 상당 부분 고서임을 고려할 때 판본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번역원에 소장되어 있는 중동문고의 장서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번역원에 소장되어 있는 중동문고는 모두 768종이다. 먼저 저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Collier's Encyclopedia(Lenardon, Robert J.)를 비롯한 극소수의 서양인 저작 외에 약간의 일본인 저작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과 《第四日曜講壇》, 《第六日曜講壇》, 《體育事典》, 《寸鐵集》 등의 일본인 서적이 소장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중동문고는 문헌 가치가 있는 일본인의 저술도 수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인과 일본인의 저서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소장 서적은 모두 한국인과 중국인의 저작이다.

둘째, 내용적으로 볼 때 중동문고는 經部, 史部, 子部, 集部에 속하는 한국인과 중국인 서적이 두루 소장되어 있다. <표 1>의 내용으로만 볼 때 도 (2), (3), (4), (11), (14), (18), (22), (25) 등은 경학 관련 서적이다. (14)《康熙字典》과 (25)《經典釋文》 등 경전 해석에 필요한 공구서와 함께 (11)《監本附音春秋穀梁注疏》처럼 《春秋穀梁傳》이라는 단일 경전에 대한 注疏와 중국 역대에 유통되었던 경학 저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한 (22)《經義考》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는 綱目體 通史로 사부에

속하는 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위로는 盤古의 開天에서부터 明末(1644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고서는 劉恕《通鑑外紀》, 金履祥《通鑑前編》, 商輅《續資治通鑑綱目》, 朱熹《通鑑綱目》과 朱國標《明紀鈔略》 등의 역사서에서 사료를 취사선택한 것이다. (10)과 (21)은 자부에 속하는 의학 서적이다. (10)《葛仙翁肘後備急方》은 葛洪의 《肘後備急方》과 陶弘景의 《補遺》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중국에서 출현 시기가 가장 빠른 의서의 하나이다. 이 의서는 임상의학 방면의 다양한 기록을 남겨놓아 후대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1)《景岳全書》는 《內經》, 《難經》, 《傷寒》, 《金匱》 등 명대 이전의 대표적인 의서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면서 중국 역대 의학가들의 정화를 폭넓게 수용하였다. 동시에 저자 자신의 임상 경험을 결합시켜 저술한 종합 의학서이다. 이 두 의서 모두 중국 한의학의 대표작이다. (7), (13), (16), (27) 등은 집부에 속하는 시문집이다. (7)·(16)과 (27)은 송대를 대표하는 문인인 陸遊(1125~1210)와 蘇軾(1037~1101)의 시문집이다. 그리고 (13)은 송대 시단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던 江西詩派를 연구한 청대 저작이다. 이상의 서적들은 모두 송대 문학을 연구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료들이다. <표 1>에서 나타나는 장서 구성 경향, 즉 경부, 사부, 자부, 집부에 속하는 서적이 두루 소장되어 있는 경향성은 번역원 소장 중동문고 768종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번역원 소장 중동문고에는 상술한 경부, 사부, 자부, 집부에 속하는 서적 외에 불교 관련 서적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목록 번호 49 《冠導傍註大乘起信論義記》, 번호 85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 번호 126, 《大方廣佛新華嚴經合論》, 번호 127 《大方廣佛華嚴經疏序演義鈔》, 번호 128 《大方廣佛華嚴經疏鈔》, 번호 129 《大佛頂首楞嚴經疏解蒙鈔》, 번호 13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번호 132 《大乘起信論義記》 등이다.

다음으로 번역원 중동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들의 문헌 가치에 대해 몇 종류의 서적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中東戰紀》(中東 古B-101) 2冊은 원명이 《中東戰紀本末》이다. 淸末 중국에서 활동했던 미국인 선교사 영 알렌(Young Allen, 林樂知, 1836~1907)과 중국인 蔡爾康이 함께 번역하고 編輯한 淸日戰爭에 관한 서적이다. 1896년 廣學會에서 초판 8권이, 1897년에 續編 4편과 1900년에 4권 등 총 16편이 출판되었다. 이 서적은 출판 이후에 한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번역되어 많은 지식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개화기의 저명한 사상가인 玄采(1856~1925)가 해당 책에서 조선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여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한 《中東戰紀》가 1899년에 황성신문사에서 출판되었다. 후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1875~1965)도 투옥 중에 《中東戰紀本末》을 읽고 한국어로 번역하였다고 한다.¹⁰⁾

(中華)陳氏의 《來薰閣書目》은 중화민국 시기 북경 유리창에 위치했던 서점인 來薰閣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정리한 목록이다. 來薰閣은 淸 咸豐 년간에 陳氏가 설립한 것이다. 본래는 古琴을 팔았던 까닭으로 “來薰閣琴室”이라고 불렸다. 후에 “내훈각”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12년에 진씨 집안의 후손인 陳連彬이 다시 직접 경영을 시작하면서, 고서 판매가 주된 사업이 되었다. 《내훈각서목》은 陳濟川이 1925년부터 내훈각을 관리한 이후로 이 서점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 상황과 특징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1929년부터 1943년까지 6번에 걸쳐 편찬, 간행한 것이다. 《내훈각서목》은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총서류 서적 5,704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서목의 가치는 이 서목을 통해 중화민국 시기 도서 출판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내훈각서목》은 중국 근대 시기 출판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宋)蘇軾 《古香齋鑑賞袖珍施註蘇詩》(中東 古D-014)는 宋代의 施元之, 顧禧, 施宿이 注를 달고 淸代의 宋犖과 張榕端이 闕定하고, 邵長蘅, 顧嗣立, 宋至가 刪補한 것이다. 청 건륭 년간 內府에서 간행한 巾箱本으로 보

10) 한효, 우림걸, <《中東戰紀》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고찰>, 《동방한문학》60, 동방한문학회, 2014.09, 200쪽.

이다. 건륭11년(1746)에 건륭 황제는 황궁의 서적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武英殿에서 서적을 발간함에 있어 목재가 대량으로 낭비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륭 황제는 황명으로 신하들에게 巾箱(두건을 넣어 두는 작은 상자)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서적을 출판했던 이전 방식을 배워 ‘古香齋袖珍本’이라는 이름의 서적을 출간하도록 했다. 당시 ‘고향재’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수진본은 모두 9부로 《四書五經》, 《史記》, 《綱目三編》, 《古文淵鑑》, 《朱子全書》, 《淵鑑類函》, 《初學記》, 《施宿注蘇軾詩》, 《春明夢餘錄》이다. 그 후에 《四書五經》을 《四書》와 《五經》으로 나누어 모두 10종류의 서적을 합쳐 《古香齋袖珍十種》이라고 불렀다. 위에서 언급한 《시숙주소식시》가 바로 《고향재감상수진시주소시》이다. 《고향재감상수진시주소시》는 총 42권과 《續補遺》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볼 때 번역원 소장본 3책은 낙질본으로 보인다. 다만 이 서적은 건륭 황제 개인이 보기 위해 간행한 것으로 당시 청 궁중의 출판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헌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조선)金九經(1899~1950?)의 《重訂滿洲祭神祭天典禮》는 《欽定滿洲祭神祭天典禮》를 교정하여 판각한 것이다. 《흙정만주제신제천전례》는 청 건륭12년(1747)에 완성된 것으로 만주족의 각종 제사 의식과 축사 등을 만주어로 기록한 서적이다. 건륭42년(1777)에 阿桂(1717~1797)와 于敏中(1714~1779)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흙정만주제신제천전례》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四庫全書》에 수록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四庫全書總目·史部·政書類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서적은 청대 황실의 샤머니즘 신앙과 예속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대 궁廷의 샤머니즘 제사와 만주족 종교 신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흥미로운 것은 김구경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다. 김구경은 일본 유학 후 1928년 말에 조선을 떠나 광복 전까지 북경과 滿洲 奉天 등 중국에서 16년의 시간을

11) 許媛婷, 〈乾隆皇帝的文青魂與品牌形像-側寫皇室圖書的出版與包裝〉, 《故宮文物月刊》제418기, 2018.1, 40쪽.

보냈다. 그는 북경에 머물렀던 기간(1927~1931) 동안 북경대학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魯迅, 周作人, 胡適, 劉半農 등과 학적 교류를 하였다. 그 후 봉천에 머물렀던 14년 동안(1932~1945) 중국과학원에서 역사학자로 활동하면서 《薑園叢書》를 간행하기도 했다. 동시에 만주어 관계 문헌에도 관심을 갖고 《중정만주제신제천전례》(3冊, 薑園精舍, 1935年)와 《滿洲語と漢語を混用したる歌本: 吃螃蟹》(奉天圖書館叢刊 第21冊, 1935年)를 출간하기도 했다.¹²⁾ 일제강점기 조선 학자가 만주에서 만주 문헌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특정 서적을 출판했다는 점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김구경은 아계와 우민중 등이 《흙정만주제신제천전례》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여 《중정만주제신제천전례》를 출판한 것이다. 번역원 중동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중정만주제신제천전례》를 통해 한문본 《흙정만주제신제천전례》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신앙과 예속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정만주제신제천전례》의 문헌가치를 찾을 수 있다.

《春秋名號歸一圖》(中東 古C-178)는 《四庫全書總目·經部·春秋類一》에 수록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축나라 馮계선(馮繼先)이 지었다. 진진손의 《직재서록해제》에 “이 서적에 인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나열 순서는 주(周)나라가 첫 번째이고, 노(魯)나라 두 번째이며, 제(齊)나라가 세 번째, 진(晉)나라가 네 번째, 초(楚)나라가 다섯 번째, 정(鄭)나라가 여섯 번째, 위(衛)나라가 일곱 번째, 진(秦)나라가 여덟 번째, 송(宋)나라가 아홉 번째, 진(陳)나라가 열 번째, 채(蔡)나라가 열한 번째, 조(曹)나라가 열두 번째, 오(吳)나라가 열세 번째, 주(鄭)나라가 열네 번째, 기(杞)나라가 열 다섯 번째, 거(莒)나라가 열여섯 번째, 등(滕)나라가 열일곱 번째, 설(薛)나라가 열여덟 번째, 허(許)나라가

12) 관련 내용은 나카미다쓰오(Nakami Tatsuo), <김구경과 한국의 만주어 문헌 연구의 요람>(《한국알타이학회》제26권, 2016.6, 2-12쪽)과 김철; 김교령, <식민지 조선 지식인 김구경의 재중 문화적 교류와 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東洋學》제80輯, 2020.6, 1-32쪽)을 참조할 것.

열아홉 번째, 기타 여러 소국들이 스무 번째이다.” 《송문총목(崇文總目)》에서는 이 책이 관직과 시호와 이름과 자를 본래 이름의 왼쪽에 모아서 덧 붙였다고 한다. 《문헌통고》에서는 이도(李燾)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옛날에 좌구명이 《춘추》에 전(傳)을 썼을 때, 여러 나라의 군주와 신하의 이름에 대해서 호칭이 한결같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는 혹은 네다섯 개에 이른다.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자가 그 기록이 뒤섞여 어지럽고 어렵게 기록된 것을 병통으로 여겼고, 풍계선이 그 중에서 같은 것을 모아 160편을 만들었다.”¹³⁾

이를 통해 《춘추명호귀일도》의 내용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서적을 통해 《春秋傳》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春秋》 연구에 필수적인 참고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번역원 중동문고에는 《춘추명호귀일도》를 포함하여 모두 22종의 《春秋》 관련 서적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점은 중동문고 소장 서적의 수집 경향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번역원에서 정리한 중동문고 기초 조사 목록에 보이는 오류 및 수정할 부분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최종 목록의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표 2〉 번역원 중동문고 목록의 오류 수정표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서명	저자	서명	저자
84	南唐書	馬令	南唐書	(宋)陸游
256	史部叢刊書錄	商務印書館	四部叢刊書錄	商務印書館
304	說文解字翼徵	許慎	說文解字翼徵	(朝鮮)朴瑄壽編, (朝鮮)金晩植校閱

13) 蜀馮繼先撰, 陳振孫《書錄解題》載“是書所列人名, 周一·魯二·齊三·晉四·楚五·鄭六·衛七·秦八·宋九·陳十·蔡十一·曹十二·吳十三·邾十四·杞十五·莒十六·滕十七·薛十八·許十九·雜小國二十.” 《崇文總目》謂其以官諡名字裒附初名之左. 《文獻通考》引李燾云“昔丘明傳《春秋》, 於列國君臣之名字不一其稱, 多者或至四五, 始學者蓋病其紛錯難記, 繼先集其同者爲一百六十篇.”

번호	수정 전		수정 후	
	서명	저자	서명	저자
310	世善堂藏書目錄	汪洪度	世善堂藏書目錄	(明)陳第
391	若柯文補編·若柯文外編	張惠言	茗柯文補編·茗柯文外編	(清)張惠言
601	止齋先生文集	皮日休	止齋先生文集	(宋)陳傅良
608	纂註杜詩澤風堂批解	杜甫	纂註杜詩澤風堂批解	(唐)杜甫著, (朝鮮)李植批解
614	天下郡國利病書	顧縫	天下郡國利病書	(清)顧炎武
634	春秋名號歸一圖	陸淳	春秋名號歸一圖	陸淳, (蜀)馮繼先
670	曝書亭集	朱尊	曝書亭集	(清)朱彝尊

이상의 오류는 기초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정확하게 수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256), (391)에서 발생한 오류는 글자체 판독 때문에 생겨난 오류이다.

둘째, 설명이 필요한 것은 <표 1>의 (6), (15), (24), (26)에 수록되어 있는 《古今圖書集成》 부분이다. 번역원 중동문고 기초 조사 목록에서 목록 번호 24 《經籍典》, 번호 26 《經濟典》, 번호 33 《考工典》, 번호 44 《坤輿典》, 번호 50 《官常典》, 번호 51 《交誼典》, 번호 217 《文學典》, 번호 264 《山川典》, 번호 281 《祥刑典》, 번호 362 《食貨典》, 번호 381 《氏族典》, 번호 410 《曆法典》, 번호 424 《藝術典》, 번호 426 《禮儀典》, 번호 473 《戎政典》, 번호 510 《字學典》, 번호 603 《職方典》, 번호 626 《草木典》, 번호 675 《學行典》 등은 모두 《古今圖書集成》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향후 최종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서적을 《古今圖書集成》이라는 하나의 서적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표 1>을 보면 현재 번역원 중동문고 목록은 ①자료명/ ②저판자 / ③청구기호/ ④수량 항목만 존재하는 간략 목록이다. 향후에는 보다 상세한 서지 사항, 예를 들어 판본, 간행년도, 판식, 序跋 등을 상세히 기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 기록을 통해 중동문고 소장 서적들의 문헌가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의 장서 현황과 자료 가치

현재 중동학원에서 성균관대학교에 기증한 고서들은 고서 소장기구인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다. 존경각은 기증 도서를 대상으로 이미 《중동문고(中東文庫) 목록》을 편찬하였다. 먼저 해당 목록의 편찬 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 목록의 예

일련 번호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청구기호
1	高麗大藏經 (再雕大藏經)		[刊寫者未詳]	1969後刷	중동C04-0003 v.1 c.2
.....
1341	高麗大藏經 (再雕大藏經)		[刊寫者未詳]	1969後刷	중동C04-1341 c.2
.....
1565	東國通鑑	서거정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B03B-001 3a v.1 c.7
.....
1570	東國通鑑	서거정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B03B-001 3a v.6 c.7
.....
1583	景岳全書**	(明)張介賓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C07-0001 v.1 c.2
1584	景岳全書	(明)張介賓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C07-0001 v.2 c.2

일련번호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청구기호
1585	景岳全書	(明)張介賓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C07-0001 v.3 c.2
.....
1877	敬業堂詩集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D03C-033 1 v.1
.....
1892	敬業堂詩集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중동D03C-033 1 v.16
.....
2153	海印寺寺藏經		刊刻處及刊年 不一定	1969[後刷]	중동C04-0004 v1 c.2
.....
2260	海印寺寺藏經		刊刻處及刊年 不一定	1969[後刷]	중동C04-0004 v77 c.2
.....
2896	通志堂經解	*****	[刊寫者未詳]	[刊寫者未詳]	중동A01-0033 v.1
.....
3216	通志堂經解		[刊寫者未詳]	[刊寫者未詳]	중동A01-0033 v.321
.....
3767	古今圖書集成	장정석	[刊寫者未詳]	發行年不明	중동C015-000 5a v.1
.....
4534	古今圖書集成	장정석	[刊寫者未詳]	發行年不明	중동C015-000 5a v.768

* 발행처 부분에 [刊寫年未詳]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발행년도에 [刊寫年未詳]과 [發行年不明]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향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 <표 1> 번역원 소장 중동문고 목록에서 보듯 번역원에도 <景岳全書> 6책이 소장되어 있다.

*** 《敬業堂詩集》의 저자는 (淸)查慎行이다.

**** 《通志堂經解》의 편저자는 (淸)徐乾學이다.

이 목록을 통해 존경각 소장본 중동문고 서적의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목록은 기초적인 조사를 위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존경각은 중동문고에 속한 서적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조사를 하여 존경각 홈페이지(<http://east.skku.edu>)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목록의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것이다.

먼저 존경각 소장본 중동문고의 장서 구성을 살펴보자.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는 총 5,747책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 구성의 큰 특색은 大藏經과 몇 개의 中國 叢書가 전체 소장 고서 가운데 양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대장경과 주요 중국 총서의 양과 그것이 전체 중동문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대장경과 주요 중국 총서가 존경각 중동문고에서 차지하는 비율

	서명	목록 일련번호	비율
1	《高麗大藏經(再雕大藏經)》	1-1341	1,341책/ 약 23.3%
2	《海印寺寺藏經》	2153-2260	107책/ 약 0.18%
3	《四部叢刊》	1514-1536; 1542-1549; 1571-1578; 1646-1665; 1681-1690; 1701-1707; 1749-1756; 1779-1814; 1830-1841; 1893-1899; 1961-1969; 1980-1992; 2036-2046; 2122-2127; 2140-2144; 4942-5735	961책/ 약 16.7%
4	《知不足齋叢書》	2261-2373	112책/ 약 0.19%
5	《皇淸經解》	2374-2753	379책/ 약 0.66%

	서명	목록 일련번호	비율
6	《十三經注疏》	2754-2863	109책/ 약 0.19%
7	《通志堂經解》	2896-3216	320책/ 약 0.56%
8	《古今圖書集成》	3767-4534	767책/ 약 1.33%
9	《欽定二十四史》	4535-4935	400책/ 약 0.69%
	합계		4,496책/ 약 78.2%

2종의 대장경과 7종의 중국 총서가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 전체 5,747책 가운데 4,496책으로 약 78.2%를 차지한다. 이 같은 장서 구성은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을 번역원 소장 중동문고와 비교해 보면,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의 장서 구성이 상당히 특별함을 알 수 있다. 즉, 중동문고가 번역원과 존경각에 각각 기증될 때 의도 여부를 떠나 대부분의 총서는 존경각에, 단행본 서적은 주로 번역원에 기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고서들의 문헌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과 (2)는 비록 간행년도가 1969(後刷)이지만 불교 연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불경 문헌이다. 불교 관련 연구자들이 직접 서적을 보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헌가치가 높은 서적임에 분명하다. 부언할 것은 《高麗大藏經(再雕大藏經)》과 《海印寺藏經》이 1969(後刷)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동문고는 1922년 설치된 후 비교적 오랜 기간을 걸쳐 장서가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것이다.

다음 중국 총서의 경우도 일정한 문헌가치를 갖고 있다.

먼저 《皇清經解》는 《學海堂經解》라고도 불린다. (淸)阮元(1764~1849)이 輯한 것으로 저자 73명의 저서 188종 1,400권을 수록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 총서에 수록된 서적들을 통해 청대 건륭과 嘉慶年間 시기의 학술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通志堂經解》는 淸初에 간행된 규모가 상당한 총서이다. 納蘭性德(1655~1685)이 校定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徐乾學(1631~1694)이 완성한 것이다. 이 총서는 宋, 元, 明의 경학 저작 140종 1,700여 권을 수록하고 있다. 이 총서의 간행은 송대 이후 간행된 경학 저작의 보존과 청대 경학 관련 총서의 출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황청경해》와 《통지당경해》라는 두 총서를 이용할 수 있다면 송대 이후부터 청대 건륭, 가경 시기까지 출현한 중국의 중요 경학 서적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두 총서를 통해 송대 이후 중국 경학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비록 이 두 종류의 총서가 언제 중동문고에 편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집 시기와 관계없이 이 두 총서는 연구자들을 송대 이후 중국 경학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서적임에 분명하다. 특히 이 두 총서가 일제강점기에 중동학원에 유입되었다면 그 의의는 더욱 클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만 일 국내 고등학교 도서관에 《황청경해》와 《학해당경해》가 소장되어 있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일일 것이다. 하물며 20세기 초, 중반에 중국 경학사를 이해할 수 있는 대형 총서가 중동문고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둘째, 《四部叢刊》은 張元濟(1867~1959)가 중국 고대의 경부·사부·자부·집부에 속한 주요한 저서들을 망라하여 編하고 商務仁書館에서 출판한 叢書이다. 《사부총간》은 모두 初編, 續編과 三編 502種이 출판되었는데 20세기 초 중국에서 출판된 규모가 가장 큰 총서이다. 주목할 점은 《사부총간》을 출판할 당시 관련자들은 수록 서적의 底本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四部叢刊初編》을 출판할 당시 일부는 宋本, 元本, 明本 등 善本을 저본으로 하여 石印 방식으로 출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저명 학자의 註解本¹⁴⁾을 저본으로 鉛活字 방식

으로 출판해야 한다고 맞섰다. 후에 선본을 저본으로 하여 출판하기로 결정되었고, 이 점이 《사부총간》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었다. 즉, 《사부총간》에 수록된 대부분의 서적은 선본을 저본으로 한 까닭으로 판본의 관점에서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당연히 학술 연구에 있어 《사부총간》이 갖는 신뢰도도 높아지게 된다. 다만 《사부총간》에 수록된 일부 서적의 판본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다. 이런 까닭으로 1922년에 상무인서관은 《사부총간》의 再版本을 출판하면서 22종의 서적을 보다 좋은 판본으로 교체하였고, 6종 서적은 책 속의 탈락되었던 부분을 보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사부총간》이 중국학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할 만한 원전 자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 가운데 《사부총간》에 속하는 서적은 표4)에서 필자가 제시한 961책 보다 많다. 그 이유는 961책이라는 통계는 《중동문고(中東文庫) 목록》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중동문고(中東文庫) 목록》에 단행본으로 수록된 서적들이 사실은 《사부총간》에 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濟北晁先生鷄肋集》(서지번호:7013805), 《蚓竅集》(서지번호:7013798), 《靜居集》(서지번호:7013800), 《眉菴集》(서지번호:7013801), 《密菴藁》(서지번호:7013821), 《遺山先生文集》(서지번호:7013827) 등이 목록에는 단행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두 《사부총간》本이다.¹⁴⁾ 그러므로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전체 중동문고 가운데 《사부총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본문의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향후 중동문고를 이용하는 연구자들이 주의할 부분이다.

셋째, 《古今圖書集成》은 청대 康熙 년간에 편찬된 類書이다. 총 10,000 권으로 수록된 글자 수는 약 1억 6천만 字이며 삽화도 6,484개에 이른다. 이 서적은 정조1년(1777)에 청에서 구입한 초간본 雍正銅活字本 전질이

14) 예를 들면 《墨子》의 경우에는 명대 이전 판본보다 청대 孫詒讓의 《墨子問詁》라는 주해본을 저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15) 물론 현재 존경각 홈페이지(<http://east.skku.edu>)에서 해당 서적을 검색하면 《사부총간》本 이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다.¹⁶⁾ 《고금도서집성》은 학문적 활용도가 상당히 큰 서적이다. 이 서적을 통해 중국 역대의 政治, 經濟, 歷史, 文化, 典章制度 등의 관련 자료를 폭넓게 조사할 수 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고금도서집성》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점에서 중등문고에 이미 《고금도서집성》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적을 수집하는 안목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 고전에서 ‘나의 의지의 서야 할 곳을 배웠다.’는 최규동이라면 그에 합당한 서적 수집 안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경각에서 정리한 중등문고 목록에 보이는 부족한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몇몇 서적을 존경각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다소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표 5〉 존경각 중등문고 목록의 오류 수정표

	서지번호	수정 전		수정 후	
		서명	저자	서명	저자
1	7013805	濟北晁先生鷄肋集	無	濟北晁先生鷄肋集	(宋)晁補之
2	7013798	蚓竅集	無	蚓竅集	(明)管時敏
3	7013800	靜居集	張羽	靜居集	(明)張羽
4	7013801	眉菴集	楊基	眉菴集	(明)楊基
5	7013803	簡齋詩外集	無	簡齋詩外集	(宋)陳與義
6	7013821	密菴藁	始寧任	密菴藁	(明)謝肅
7	7013827	遺山先生文集	元好問	遺山先生文集	(元)元好問

(1), (2), (5)에서 수정 전 내용은 존경각 고서 자료검색에서 저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수정 후 내용은 필자가 저자를 조사하여 표시한 것이다. (3), (4), (7)의 경우는 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충하여 기재한 것

16) 청구기호: 奎中貴 2555-v.1-5022.

이다. 마지막으로 (6)은 존경각 고서 자료검색을 통해 얻은 결과가 원래의 저자와 차이가 나는 경우이다. 향후 보다 정밀한 서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말

중동문고는 1922년 백농 최규동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교 도서관이다. 그 도서관에 수집된 장서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동학원 지하에 보관 되어왔고, 또 일부는 경북 성주 최규동의 생가에 보관 되어왔다. 후에 중동학원에 보관된 장서는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으로, 최규동의 생가에 보존되었던 것은 한국고전번역원으로 각각 기증되었다. 장서 구성으로 볼 때 존경각 소장 중동문고는 대장경과 중국 총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번역원 소장 중동문고는 단행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단일 고교의 힘으로 중동문고라는 장서를 수집하여 관리했다는 것은 근대 한국의 장서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동문고의 정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중동문고는 번역원과 존경각에 각각 나누어 기증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보관과 정리도 두 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가능하다면 목록 편찬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소장 고서를 정리해 주기를 바란다. 동일한 기준으로 목록이 편찬·간행된다면 이 고서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두 기관이 중동문고 목록을 하나로 합쳐 출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목록으로 출판되어야 중동문고 소장 서적들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해당 목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번역원과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는 중동문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서적이 나뉘어 소장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악전서》는 존경각에 3책이, 번역원에 6책이 소장되어 있다. 《고금도서집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존경각에는 《고금도서집성》 767책이 소장되어 있다. 《고금도서집성》이 원래 10,000권인 것을 고려한다면 존경각 소장본은 완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원에도 적지 않은 《고금도서집성》이 소장되어 있다. 향후 존경각 소장본과 번역원 소장본을 비교하여 내용의 중복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번역원 소장 《고금도서집성》이 존경각 소장본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서로 서적을 교환하여 소장하는 것도 좋은 서적 관리 방법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동문고에 소장된 서적들의 문헌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몇몇 서적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더 많은 예시를 통해 중동문고 소장 서적들의 문헌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동문고의 형성과 장서의 집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들은 관련 자료의 발굴을 기다리며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한국고전번역원 편, 《중동문고 목록》(비매품), 2024.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편, 《중동문고(中東文庫) 목록》(비매품), 2024.
 이명학 엮음, 〈中東學校 略史〉, 《이명학(67회)이 엮은 우리 중동은》, 서울: 지코사이언스, 2016.
 이명학 엮음, 《백농 최규동 평전》, 《중동역사박물관총서》, 2023.
 한효·우립걸, 〈《中東戰紀》의 한국적 수용에 관한 고찰〉, 《동방한문학》 60, 동방한문학회, 2014.

김철·김교령, 〈식민지 조선 지식인 김구경의 재중 문화적 교류와 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東洋學》 제80집, 2020.

나카미다쓰오(Nakami Tatsuo), 〈김구경과 한국의 만주어 문헌 연구의 요람〉, 《한국알타이학회》 제26권, 2016.

許媛婷, 〈乾隆皇帝의文靑魂與品牌形象-側寫皇室圖書的出版與包裝〉, 《故宮文物月刊》제418기, 2018.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 <https://www.itkc.or.kr/main.do>

존경각 홈페이지: <http://east.skku.edu>

<Abstract>

The Joongdong Library was the first high school library in Korea, founded in 1922 by Baeknong Choi Gyu-dong. It is said that in terms of the amount of books it contained, it was second only to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at the time. Many of the collected books have been stored in the basement of the Joongdong Academy, and some have been stored in the birthplace of Mr. Choi Gyu-dong. Later, due to storage issues, the books that were stored at the Joongdong Academy were donated to the Sungkyunkwan University Jongyeonggak, and those that were kept at the birthplace of Professor Choi Gyu-dong were donated to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n terms of book composition, the Joongdong Library held by the Jongyeonggak consists mainly of Tripitaka Korea and Chinese Congshu(叢書), while the Joongdong library held by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consists mainly of single volumes.

The Joongdong Library contains Korean and Chinese books collected

by the Joongdong Academ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ot only is the number of books in the library quite large, but there are also many books with great documentary value in terms of quality.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a noteworthy fact in modern Korean book collection activities that a single high school collected and managed the collection of books called the Joongdong Library.

However, the Joongdong Library donated to the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nd Jongyeonggak have not been donated for very long, so there is considerable room for supplementing the basic research findings. A more detailed investigation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to produce an accurate bibliography. At the same time, excavation and research on material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Joongdong Library and the collection of books should continue.

Keywords: Joongdong Library(중동문고), Choi Kyu-dong(최규동),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한국고전번
역원), Jongyeonggak library of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준경각), Current status of Book collection
(장서 현황), Value of Materials(자료 가치)